

## 중국 유명 베이커리체인 85도씨가 15만위안의 벌금형을 받다

조사 : aT청두지사

유명 베이커리·카페 체인인 85도씨(85度C)가 그동안 소비자들을 상대로 허위광고를 했음이 밝혀졌다. 유명 베이커리 체인의 명성과는 달리 질이 떨어지고 값싼 원료로 로우송(가공한 고기를 솜처럼 만든 것)을 만들어 광고하고 판매해 소비자들을 기만해 온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85도씨는 이번 로우송 사건으로 15만 위안의 벌금형을 받았다.



유명 베이커리·카페체인 85도씨



중국의 특색 있는 빵, 로우송을 뿌린  
로우송 미엔빠오

3월 15일 중국 소비자의 날(315)을 앞두고, 지난 3월 12일 상하이시 공상국은 2017년 소비자 권익침해 리스트를 발표했다. 그 중에는 위법 광고, 허위 또는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 판매 불합격품의 광고, 소비자 강매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85도씨 역시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85도씨가 판매한 훈제닭로우송빵(熏鸡肉松面包, 11위안), 매운맛향송빵(辣味香松面包, 8위안)이라는 이 두 가지 빵은 모두 원료가 “로우송”이 아닌, “로우편송”으로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관리국은 위법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85도씨에 15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했다.

- \* 로우송(肉松) : 닭고기 등 가공한 고기를 수분이 있는 솜처럼 만든 것
- \* 로우편송(肉粉松) : 완두콩분을 고기분과 혼합해 만든 것으로 로우송과 달리 성분 및 영양에서 큰 차이가 있음

한편, 상하이시 공상국과 시장감독부는 지난해 소비자고발 23만 건을 처리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대비 104.4% 증가된 수치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소비자 손실은 무려 8,584만 위안에 달했다. 저질상품 피해, 소비자 권익보호 위반 등은 1,368건이었으며 벌금 총액은 3,437만 위안에 달했다. ※ 출처 : 신랑왕